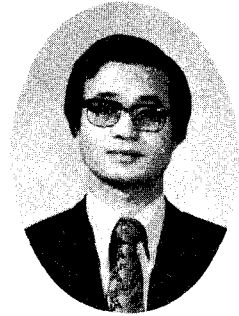


# 산란율 저하요인

원 송 대  
(연암축산전문대 교수)



산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그 원인이 복합적이므로 우선 사양 관리면에서 잘못된 점을 발견하여 개선토록 해야한다.

산란율이 3%이상 떨어지면 관리자는 우선 나의 잘못이 어디 있는지 양심껏 노력해서 개선해 줘야지 주인에게 충성하는 일이고 그 양계장이 불황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에는 산란율 저하 증후군(EDS)이란 말이 공해를 이룰 정도로 양계업자 사이에 오르내리고 있어 산란율만 떨어지면 EDS가 아닌가 의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점은 좀더 깊은 상식을 갖고 전문가와 상의할 문제라 생각한다.

부실한 관리로 인하여 산란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선 다음의 사항을 하나 하나 점검해 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1) 절식절수를 시킬 경우

겨울철에 절수로 물통이 얼거나 수도관이 얼어 못쓸 경우가 많다.

(2) 사료 섭취량이 너무 적을 때

닭에 질병이 들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줄 경우 사료 섭취량이 준다. 특히 케이지에 이동한 후 3~4일간 섭취량이 떨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겠다. 여름철 스테이트 제사에서 온도가 높으면 사료 섭취량이 떨어진다.

(3) 급이기 급수기가 모자라거나 편중되게 잘못 배치되어 있을 때.

여름철 평사 종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우.

(4) 급수기가 너무 더럽거나 급수기가 너무 차가울 때.

급수기 청소가 불량하거나 겨울철에 급수기가 얼어서 차가운 물을 마시면 산란에 지장이 있다.

(5) 사료중 영양소의 배합이 균형되어 있지 않을 때.

품질관리에 소홀한 사료공장에서 양축가에 피해를 주는 예가 이럴 경우다. 특히 구매과에서 원료매입시 품질 위주로 매입하지 않는 공장에서 흔히 완전배합 사료의 신용이 떨어진 다.

(6) 기호성이 나쁜 사료를 줄 때.

같은 원료라도 닭에 미치는 기호성에 따라 섭취량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미국에서 닭 사료에도 flavour(향료)를 쓰는 경향이 높아 가고 있다.

(7) 기온이 급변할 때.

겨울철 기온이 급하락하면 스트레스를 받



고 체온유지를 위해 알 생산에 영향을 준다. 양계인은 일기예보에 민첩한 대책을 세울 줄 알아야 하겠다.

(8) 사양 관리에 급변이 있을 때

관리자의 변경 및 관리자의 나태가 산란율에 영향을 주므로 주인은 닭관리 전반에 세심한 관찰로 사람이 바뀌더라도 주인이 관리할 수 있어야 하겠다.

(9) 일조시간 또는 광선 관리가 일정하지 않고 난조를 보일 때

겨울철에 전구를 닭지 않는 경우와 전기가 나간후 타이머 조절이 잘 안된 경우 또는 관리자가 새벽에 늦잠을 자면서 불을 늦게 꺼줄 때 산란에 영향을 준다.

(10) 환기가 불량할 때

겨울철엔 어느 계사이고 기온 하락을 막기 위해 철저히 문을 폐쇄하여 환기가 좋지 않은 경우가 흔하다.

특히 평사 종계장의 환기 불량은 종란 생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환풍기는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계사에 필요한 것이다.

(11) 환우를 할 때

사양관리, 점동관리가 잘못된 농장에서 환우현상을 볼 수 있다.

(12) 투약에 잘못이 있을 때

언제인가 산란계가 설사를 하여 설파제를 5일간 투여했더니 설사는 멈추고 산란율이 심하게 떨어져 걱정하는 양계장을 보았다.

(13) 설사를 할 때

매일 닭똥을 관찰하여 설사가 생기면 일단 장염으로 보고 전문 수의사와 협의한다.

최근에 무서운 것은 사료변질로 곰팡이성 장염이 각종 생겨 항생제의 투약이 잘 안 듣는 경우가 있다.

(14) 벽 진드기, 이, 모기등 외부 기생충이 닭을 괴롭힐 때

특히 오래된 평사 종계장은 벽진드기와 같은 외부 기생충을 입사전에 철저히 살충해야 한다.

(15) 산란중의 닭에 백신접종 등으로 스트레스를 줄 때

접종전후 일주일간은 영양제를 투여하고 시술자의 닭 취급을 부드럽게 해야한다.

(16) 닭이 호흡기 질환에 걸렸을 때

겨울철에 닭의 호흡기 질환을 미리 아는 방법은 자정 넘어서 계사에 들어가 소리를 듣는 방법이다.

(17) 난중이 떨어질 경우

난중이 가벼우면서 연란자, 파란 등이 증가할 경우 전문 수의사와 상의하여 질병측에서 원인을 알아본다. 물론 사료의 질에 따라, 계사의 환경에 따라 난중이 가벼울 때도 있다.

(18) 부패된 사료를 먹지 않았나 본다

항생제 비타민제 등의 수용액을 사료위에 뿌려줘서 사료가 부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경우 사료를 당일에 깨끗이 먹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사료빔에 오래 저장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사료빔 내부에 영킨 사료를 털어 버린다.

(19) 닭의 이동으로 사회적서열이 교환되어 서로 쫓는 경우 산란율이 떨어진다.

평사 사육닭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동했을 경우 텃세를 부리거나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등의 사회적 질서를 찾느라고 산란이 준다.

(20) 인근 양계장에서 닭병이 발생했는지 알아본다.

특히 겨울철에 전염성기관지염, 뉴캐슬병, 코라이자, CRD와 같은 전염병은 산란율과 직접 연관이 되므로 인근 양계장과 질병 정보도 서로 교환하여 공동 방역을 해야 하겠다.

요즘 양계장을 돌아보면 많은 질문이 EDS이다.

EDS에 노이로제(?)가 걸린 것 같다.

보통 EDS의 발생으로 25~26주령 또는 29~31주령 즉 산란율이 피크에 도달할 무렵에 산란율이 기대했던 것보다 30~50% 떨어진다.

이와같은 예는 뉴캐슬병, 전염성 기관지염, 닭 뇌척수염, 마이코플라즈마증 등과 같은 전염병에서도 꼭 같은 산란율 저하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병들은 병의 경과와 함께 외부 증상이 나타나지만 EDS는 거의 외부증상이 없고 난각의 색깔이 퇴색되고(유색란에서) 난각이 얇아지거나 기형란이 생긴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산란율의 저하 요인 가운데 80%가 사양관리 실수로 오는 수가 많으므로 모든 관리자가 매일 산란율을 점검하여 산란율이 3%이상 떨어지면 상기와 같은 점을 점검하여 원인이 발견되면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

산란율을 50%만 개선하더라도 산란계 1만수 농장에서 하루에 2만원 이상은 거뜬히 이익을 볼수 있으므로 주인에게 보너스 청구하기 전에 특별 보너스가 나올 것이다. 특히 양계 불황은 산란율 개선으로 극복해야 한다.

⊕ 한국비이엘화학(주)  
영업부 직통전화번호 : 66-5152-4

## 복합형 만성호흡기병 - CCRD치료에 마크로마이신 - C가 있습니다.

마크로마이신 - C 수용산은

- 복합형 만성호흡기병 치료에도 아주 잘 듣는 약입니다.
- 투약후 치료효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 두가지 항생물질의 복합제제이므로 항균범위가 넓고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 가장 경제적인 호흡기병 치료제입니다.

광범위 복합항생제



포장 : 300g 캔. 가격 : 10,000원

